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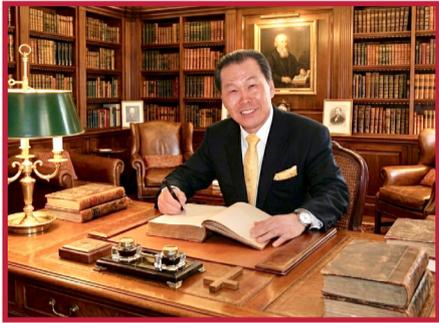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3월 1일 (제 1347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주여, 어느 때 보셨나이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1:47).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신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요1:48).

나다나엘과 초면인 예수님이 그를 이미 보고 계셨듯이, 주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신다(시139:2). “눈을 만드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시94:9).

그 예수님은 다니엘이 왕명을 어기며 기도할 때 보셨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도 보셨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도 보셨고, 과부가 두렘돈을 헌금 궤에 넣을 때도 보셨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오른편에 선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먹이고 마시게 했을 때도 보셨다.

그렇다면 주님이 좋은 것만 보고 계실까? No.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를 죽이라고 명할 때도, 사울이 선지자 앞에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할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할 때도, 아간이 물건을 훔칠 때도, 주님의 왼편에 선 자들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을 때, 벗은 자를 입히지 않을 때,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을 때도 다 보고 계셨다.

내가 ‘큰 자가 되기 전에 깨끗한 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유도, 거짓말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안 하는 이유도, 내가 열 명 앞에서나 십만 명 앞에서나 동일하게 열과 성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다 이것이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39:9)라던 요셉의 마음으로 살자.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여, 어느 때 나를 보셨나이까?”
 “네가 은밀하게 남을 도울 때 보았노라.”
 “네가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보았노라.”
 “네가 핍박 받고 울 때 그 때 보았노라.”
 주님의 눈이 이런 곳에 머물게 살자.

마음이 맞는 자는 우주와도 바꾸지 않는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목회자 및 실업인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의 본교회를 두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자,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읽고,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일하는 사람을 골라 썼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교육하며 제2의 이초석을 만들기에 애써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

아닙니까(삼하23:8~39)?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연, 지연, 혈연에 마음을 뺏겨 턱턱 자리에 갖다 놓았다가 고통을 당하고 회사가 부도나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맞는 자와 일하셨건만, 왜 어리석게 내 앞에 와서 아침하는 자들에 속아 대업을 그르칩니까? 자고로 만든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과 마음이 맞는 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를 골라 쓰는 것이 목회와 사업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목사님의 목회 성공의 비결이라면,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을 골라 쓰신다는 점입니다. 25년의 해외선교 역사 가운데 어찌 탄탄대로만 펼쳐졌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

못해 헤어집니까? 서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는 상대의 약점도 다 사랑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활에 치이다 보니 그 약점들이 점차 더 커져 보이고, 약점들을 보완해주시기보다 오히려 ‘이건 서로가 맞지 않는 거’라며 다투고 분쟁하다 결국 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후6:14)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목사님도 누누이 강조하시는 말씀이고요.

‘마음이 맞는 자는 우주와도 바꾸지 않는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은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



2010 베네수엘라 목회자 세미나 광경

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니라 오직 ‘예’가 되었던 실루아노와 디모테와 일했던 것처럼(고후1:19~20), 나 역시 오직 ‘예’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들과 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교회를 비우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도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뿐 아니라 정치나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도 나와 마음이 맞는 다윗을 통해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다 하시지 않았습니까(행13:22)? 예수님도 당신이 원하는 자를 불러 쓰셨다(막3:13)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충성스런 37명의 용사와 대업을 이룬 것

이 어찌 다 좋을 수만 있었겠습니까? 인간인자라 각자 개성이 있고, 약점도 있었겠죠. 그러나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향한 열정만 보시고, 참고 인내하고 격려하시며 지금까지 선교사역을 성장시켜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와 지향점이 같고,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있다면 서로 다른 면들은 하나의 목표 아래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그런 원칙과 철학이 목사님의 목회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대형교회나 대기업을 이끌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리더십이라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서로 죽고 못 사내 하며 결혼한 커플들이 왜 허구한 날 다투다

다.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대화도 되지 않고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을 다 이루어가려면 목사님 말씀처럼,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찾았고, 일천 여자 중에는 찾지 못했다(전7:28)고 했지요. 그러나 목사님은 만남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만, 관계 형성은 내가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용하셨던 것처럼, 목사님이 같은 목표와 지향점으로 일꾼들을 녹여내신 포용의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

* 날짜 : 3월 25일(수)~4월 3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23:1~6)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에 달렸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 농담처럼 던지는 말, 무의식 속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시139:4).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문하였으나 죄를 찾지 못하자 명절을 기하여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꿈도 있었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민란이 날까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는, “나는 무고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27:25)라고 외쳤습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나치의 600만 유대인 대학살이 그 증거입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을 탐지하러 간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도 다 들으셨고, 그들의 말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한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에 동의한 백성 모두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을 밥이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을 밥 먹듯 진멸하며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예상외였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삼상17:43)라고 말했고,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17:45)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골리앗은 개처럼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 죽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든 다윗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뜨끔하시죠? 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문

득 들지요? 사실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는 말이 잘 나오죠. ‘다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문제는 고난을 당할 때, 사면초가일 때, 환난 날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 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개 불평불만하고, 부정에, 좌절 섞인 말이 나오기 일쑤거든요. 저는 많은 상담을 합니다. 성도들 대개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지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앞날을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환난 날에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미래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총회장 이초석 목사

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상 잠잠하셔서, “힘드니까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이해한다. 이 건 패스할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민14:2)하며 불평했습니다. 힘드니까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민14:27)하십니다. 다 들으셨다는 말씀이고,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힘드십니까? 고난이 큼니까? 일이 얽혔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말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선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을 참 잘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장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는 처참한 지경에서도,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

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23:6)라고 말했고, 옴은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간 상황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1:21)라고 말했으며,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모진 고난 중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들은 대로 복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

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어지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벧전3:10~12).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합니까? 만사형통의 복을 원합니까? 말을 잘하세요. 성경은 누누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약3:4~6)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말을 점검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도 관촬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면 난리가 납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얼른 고치세요. 잘못 뿌린 것들을 거두고 다시 좋은 것을 뿌리세요.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13:6),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8:18),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앞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시91:7),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므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매일 말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어려워니까, 힘드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하니까 더욱 말을 잘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시장에 가서 “무찌 주세요.” 하면 주인이 무찌를 줘서 그걸 뿌리면 무가 나지요? 내가 가게 주인에게 “배추씨 주세요.” 했는데, 장미 씨를 주지는 않거든요. 결국 무엇을 심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요, 그것은 내 입의 말에 달린 겁니다. 광야 같은 41년 목회 여정을 걸어오면서도 제가 이렇게 견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교단이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을 잘 뿌려서입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만, 저는 아무 말이나 하지 않았습니

환난 날에 그의 말을 들어보라 그의 미래를 알 수 있다

다.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말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와 섭리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각종 식물은 씨앗을 내라”고 하셨기에 만들어졌고, 대자연이 한 치 오차 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말이 곧 우리입니다. 우리 말이 곧 우리 일생이며, 우리 미래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말을 잘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으니까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141:3). 할렐루야!

:: 객원컬럼 ::

창조주의 자격

영화 <프랑켄슈타인>은 창조주를 흉내 낸 인간의 오만을 주제로 합니다. 19세기 초 과학혁명의 시기에 전기, 해부학, 생명 실험 등에 관심이 높았던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건장한 젊은 시체들을 가져다 조합하여 '빅터'라는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곧 창조주의 역할을 이루어냈다고 흥분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이전에 인류가 꿈꾸지 못했던 과학적 성취에 목적이 있었지, 자신이 만들어낸 괴조물을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외면과 무관심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빅터'에게 쫓겨 다니다 죽음을 앞두고 서야 자신의 오만을 깨닫고 빅터와 화해를 시도합니다. 빅터에게 아무런 미래도 열어 줄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목사님께서 생각에 대해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한번 인간을 만들어 볼까?'하는 생각만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절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확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만들어놓은 괴조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배척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이미 예전에 끝나버렸을 겁니다.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더욱 귀하고 놀랍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그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잘하든 잘못하든 내 자식이기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심한 말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자식을 향한 부모의 모든 행동은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특히 열 달 동안 배 아파 피로 낳은 어머니의 사랑은 뭐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왜냐하면 낳았기 때문이라고 목사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실 때 자주 말씀하시죠. 어쩌면 이것이 창조주의 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낳았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의무 말입니다. 이 영화를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무책임한 분이 아니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 해주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요 축복인지요. 할렐루야! Henry Han

:: To Be Succeeded ::

순종과 충성

교회 신문에 글을 쓰게 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청년부로 인도함을 받은 나에게 가장 처음 맡겨진 일은, 팀 소속원들에게 공지사항을 작성해서 전달하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런 것이니, 오늘부터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주보에 올리세요." 갑작스런 상황이었지만 곧바로 순종한 나에게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큰 은혜를 주셨고, 매주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요약해서 청년부 주보에 실을 수 있게 하셨다. 이후 수련회 후기를 시작으로 신문에 글을 올리게 된 내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이력은 없었다. 다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쓰였던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쓰임 받았던 작은 나귀처럼, 내게 있던 작은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셨고, 순종하니 힘과 은혜를 주신 것이었다. 글을 쓰는 십수 년 동안,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비들을 넘기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도 늘 함께하시어 근심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또 아픔을 치료함으로 바꾸

시고, 그것을 글로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케 하셨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눅16:10)는 성경 말씀처럼, 목사님은 단 한 명의 성도로 시작해서 지금의 세계 교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여 수많은 영혼을 윤택하게 하기까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순종의 순간들이 있었을까? 요셉이 13년 고난의 시간을 오로지 순종과 충성으로 인내해서 이집트와 온 세상을 기근에서 구원한 것처럼, 또 모세가 80의 나이에 순종하여 출애굽의 대역사에 쓰임 받은 것처럼, 성경의 인물들과 목사님을 보며 작은 순종과 충성이 모이고 모이면 내 영혼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다른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 목사님을 본받아 맡겨진 삶과 일에 힘써 순종하고 충성하여 나와 남을 모두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보자. 영광의 그 날과 축복은 반드시 도래한다. 아멘! 이국진 사모

:: 영생에 이르는 길 ::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최근 상영 중인 영화 <신의 악단>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짓고 찬양대를 만들어 부흥회를 열면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NGO의 제안에 복한 당국이 가짜 찬양대를 만들며 벌어지는 소동과, 그 가운데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에서 주인공 공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를 부르는 장면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찬송은 운명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절규였으며, 30여 년 전 저희 어머니를 회심하게 했던 바로 그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머니는 옆집 할머니의 전도로 올림피아공원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울려 퍼지던 찬양 가사는 어머니의 마음을 깊게 움직였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부모 없이 자란 설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어지지 않던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고자 어머니는 홀로 상경하여 온갖 굶은일을 다 해보았지

만, 상황은 쉽사리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처절하게 사셨던 어머니의 무거운 짐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벗겨졌습니다. 대를 잇던 저주는 끊어졌고, 우리 가정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대신 주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도, 복한 땅의 동포도, 상처 입은 이웃과 나 자신도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난과 저주, 질병과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으려 애쓰던 무거운 짐을 이제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문천명 전도사

예수중심제자신학원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접수마감 3월 5일까지
 * 문의 02-533-9191

:: 소망의 언덕 ::

건강한 권위와 감사에 대하여

"왜 자녀를 교육부서에 보내지 않느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목회자를 이상처럼 여기게 될까 봐 걱정돼서 보내지 않는다." 최근 한 가정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상승배는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고 교육부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비판적 복종이나 맹목적 추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이해와 감사, 그리고 책임 있는 순종입니다. 얼마 전 중고등부가 필리핀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예수님, 파이팅! 목사님, 파이팅!"이라고 외쳤을 때, 목사님께서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를 외친 장면이 있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유독 교회 안에서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라는 말에 이상승배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줄 것을

주라... 존경을 받을 자에게 존경을 하라"(롬13:7),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딤후 5:17). 존경은 질서 있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결국 세상 그 무엇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수고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과 섬김이 동반된 건강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일입니다. 이상화된 권위는 경계해야 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는 주의 종에게 드리는 감사는 결코 이상승배가 아닙니다. 부디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존중할 줄 아는 인성을 함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이현승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 참된 깨달음 ::

1년에 1개

2004년 6월 30일 새벽 1시, 대학에 입학해 첫 여름방학을 맞이한 저는 원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서 ①어도비 일러스트 기초 떼기, ②포토샵 공부하기, ③홈페이지 만들기를 계획했어요. 드로잉 실력이 부족하니까 ④인물 초상화도 그리려 했습니다. ⑤만화책 한 권을 골라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따라 그리볼 계획도 세웠죠. 이게 크로키 연습에 좋더군요요. 그러면서 도서관에 가서 ⑥광고 잡지를 읽고, ⑦일주일에 두 권씩 독서하고, ⑧일주일에 한 편씩 영화 보고, ⑨국사를 공부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⑩영어 공부까지.

어느 때보다 의욕적이고 불타올라 있었어요. 재수해서 남들보다 뒤쳐진 1년을 방학 때 무조건 만회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났을 때 저는 몇 개를 해냈을까요? 부끄럽지만, 단 하나도 못했습니다. 사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저 중에서 해낸 게 없었어요. 돌이켜 보면 저는 새해 계획도 매해 저런 식으로 세웁니다. 연초에 해내고 싶은 것을 나열하면 열다섯 개가 넘는데 연말이 되면 제대로 이룬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허무하

고 아쉬운 기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죠. 이루지 못한 계획들은 고스란히 다음 해로, 또 다음 해로 미뤄졌고요.

이제는 1년에 딱 하나의 목표만 세웁니다. 인생에서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한 가지, 언젠가 꼭 해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던 한 가지에만 도전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를 해내기 위해 저의 한정된 시간, 한정된 집중력, 한정된 체력과 한정된 돈을 그러모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운전면허를 땀고, 2014년에는 처음으로 피아노를 배워 좋아하는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15년에는 평생 콤플렉스였던 영어에 도전했습니다. 영어학원만 빠지지 말고 다니자는 마음으로 1년을 썼더니 생초보였던 실력이 어느새 준중급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2016년에는 수영을 배웠고, 2017년에는 광고 회사를 그만두고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배웠던 영어도 쓰고 수영도 했죠. 2018년에는 다시 취업하고 방송통신대학에 편입해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2019년에는 외국인에게 가르칠 한국어를 배웠고, 2020년에는 에세이 책을 썼습니

다. 2021년에는 서울 둘레길 157km를 걸었고, 2022년에는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덕분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죠. 2023년에는 글쓰기 강의를 했고, 2024년에는 근육을 키웠고요, 2025년에는 생활 반경을 넓히기 위해 수도권 둘레길 16군데를 여행했습니다.

13년을 압축한 결과만 보면 제가 부지런해서 가능한 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저는 끈질기 미루는 사람이에요. 고백하자면, 지금 쓰고 있는 글도 지난주 토요일에 완성하려 했는데 수요일이 되어서야 쓰고 있네요. 매일 한결같이 열심을 낼 순 없죠. 바지런히 해내는 날도 있고 무기력에 찌들어 아무것도 못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과 태도의 반복도 멈추지 않고 1년을 이어갔더니 작년보다 나은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겨우 하나씩만 이뤄냈을 뿐인데도 저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작년과 다른 2026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많은 계획 중 딱 한 가지만 골라 1년을 써보세요. 분명, 인생 최고의 12월 31일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신은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단체에서든, 교회에서든 싫은 사람도 있고, 때론 미운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싫어함'과 '미워함'은 온도의 차이일 뿐 둘 다 부정적 정서다. '싫어함'은 내가 멀어지고 싶은 감정이라면, '미워함'은 풀어내지 못한 감정이 응어리진 상태다.

성경은 '쓴 뿌리'를 조심하라고 말씀한다(히12:15).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감정을 끌어내거나 뽑아내지 않으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 결국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다(고전12장). 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찌 될까? 하나님은 모든 총만함을 교회를 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엡1장).

사람들은 오해나 섭섭함이 생기면 직분부터 내려놓고 공동체에서 떨어진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엡4장). 그렇기에 직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우리의 영적 원수가 가장 기뻐할 일이다. 교회와 하나 되지 않는 태도는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싫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끌어내는 일과 같다.

감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감정이 신앙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기분이나 감정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혹 '싫어함'이라는 이유 뒤에 숨어서 공동체 밖에서 서성거리는가? 이제 그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한 보 앞으로 나아가보자. 한보 내딛을 용기가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대하신 것을 보고 배워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가룟 유다를 마주하기 힘든 불편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감정보다 더 큰 사랑으로 대하셨다.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양은정 생도



:: 한라에 핀 사론의 꽃 ::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

영화 '심야의 기적(Miracle of the Night)'은 한밤의 고요한 어둠 속에서 펼쳐지는 작은 기적들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속 인물들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각자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다. 그 기적을 통해 인생의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순간들의 소중함, 그리고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철학적 여정을 관객들에게 보여준다. 모든 기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처럼(요2:1~5),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법칙'이 빛을 발한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이 더욱 찬란해지듯,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가장 생생하게 나타난다.

만약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가까운 곳에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었다면 아무도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적은 사

방이 막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과 도움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있을 때 누릴 수 있다. 불성실한 태도로 기적만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기적은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난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변화된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르라."고 말한다.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항아리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만큼 기적이 나타났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도, 투자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은혜·섭리를 알기에 그 앞 위에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기적은 바로 그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일어

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자체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진정한 축복은 기적의 경험이라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다. 또한 '가나의 혼인 잔치'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표적은 우리가 그 일을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라보게 한다.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한 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지켜본다.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믿고, 선포한 것 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 아픔, 문제들 속에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해답을 주시는지 다시 생각해보자. 야곱의 인생을 통해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질 것이다. 사방이 캄캄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권정미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